

투데이 칼럼

작계 5015의 의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 간 '작계5015'를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군의 군사 작전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부대에 따라 4자리 숫자로 명명된 '작계0000'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1000번 대는 미 중부사령부(중동·이집트·중앙아시아 지역 담당), 2000번 대는 미 북부사령부(미국 본토담당) 등이 세우며 9000번 대까지 있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5000번대로 시작된다.

'작계'는 '작전계획'을 줄인 말이다. 작계5015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해 기존 '작계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이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2015년 6월 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새롭게 수립된 작전 계획이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5027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029, 국지 도발에 대응한 평시 작계를 통합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뒤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기존 작계5027은 주로 북한의 남침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른 5단계 대응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발생하면 서울 북쪽의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뒤 미군의 증원 전력에 도차하면 전열을 정비해 반격에 나선다는 개념이다.

작계5027은 주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대비에 맞춰졌다. 반면 작계5015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이전에 미리 국지 도발 상황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가동할지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한다.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도 들어 있다. 그러나 양국군의 제대별(대대, 연대, 사단급)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대별 작전 계획이 완성되면 기존 작계5027은 폐기된다. 2015년 8월

끝난 한미 연합 울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새 작계의 일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주요 작전 계획 가운데 작계5026은 정밀 공습 계획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의 관리다.

작계5026은 제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3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한국 측이 극력 반대하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이 작전 계획은 보류됐다.

작계5027은 한국전쟁과 같은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전면적 계획이다.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접령 통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작전 계획 중 핵심으로 한미연합사가 1974년 작성했다.

다른 작계들은 작계5027을 보완하

고 보강하는 보조 계획이다. 태평양사령부 예하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편성된 한미연합사는 평시 각종 연습을 통해 전투 준비태세를 향상시킨다.

전시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 실패 때 무력 공격을 격퇴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이 작계5027이다. 작계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핵심 전력은 미 증원군이다.

지상군 2개 군단, 25개 비행대대, 5개 항모전투단, 2개 해병대함대 등 약 69만 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항공기 등 막강한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파견한다는 것이다.

작계5028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작계로 검토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작계5029는 북한 붕괴 대비 계획이다. 북한 급변 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추진하는 작전으로 1999년 작성됐다.

북한 난민 대량 유입 사태와 북한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 대비책을 담았다. 작계5030은 북한 동요 계획이다.

전쟁 발발 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하는 작전 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공격이 아닌 대북 압박을 통한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작전계획이다.

독자제언

수확철 농산물 도난·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해마다 10월이 되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산물 수확이 한창인 계절이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타작을 하면 농협 등 미국가동처리장이 없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도둑가에서 타작한 벼를 말리는 경우가 많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벼를 말리다 보면 도난의 우려와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요즘에 벼 절도 수법으로 펌프 차량을 이용하여 벼를 말리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빨아들여 자연재해를 이겨내며 한 해 동안 고생하여 수확한 농민들의 시름을 알게 하는 원인이 되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도둑가에서 벼를 말리다 보면 통행차량에 의한 벼 파손 등의 우려가 크고, 교행할 때 차량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벼를 비롯한 인삼, 과실 등뿐만 아니

라 고가의 농기계, 비료, 농축산용 기자재 사용 후 보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과 기자재들은 CCTV 등 보안시설을 한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애써 지은 농산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의심 가는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등이 왕래를 할 시에는 즉시 112 또는 인근 파출소(자치경찰) 신고나 수상한 외지 차량번호 등을 기록하여 마을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율방범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농축산물, 고가의 농기계, 농사 기자재 등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단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병행되어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한 해 수확의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중 부남파출소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만지지 마세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리구리아 비치에 있는 크리스탈 코브 주립 공원에 기름 찌꺼기를 만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곳 모래와 비취, 식물에 묻어낸 티르는 10월 초 현행턴비치 인근에서 유출된 기름의 잔재다.

사설

병의원 치료비 차이 문제

지역별 병의원 간 치료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비급여 제공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일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156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 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외원은 폐렴 구균과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 치과외원은 대진충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 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 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 금액(831만2880원)이 병원(581만950원)보다 약 250만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은 의원의 경우 평균 금액 44만1857원으로 상급 종합병원(59만2710원)보다 14만415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최고 금액은 360만원으로 병원 최고 금액인 66만원과 약 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의원 10만1316원으로 상급 종합병원 5만13882원보다 2배 높은 값으로 집계됐다.

재증명 수수료 상한 금액 초과 기관은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 진료비 정보 도출을 할 수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개 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 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 의료계, 학계 그리고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바란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 사기

최근 비트코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려고 숙인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상품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니다. 심지어 도박으로도 볼 수 없다.

말 그대로 '자급 편취' 행위에 가깝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포함한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해 유인한다.

최근 트렌드인 '영광·주식·비트코인' 등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계층의 투기 심리와 서민들의 사행심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신종 사기는 비트코인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돈을 거는 방식이다.

결론은 마치 '홀짝 맞추기' 게임 같은 사실상의 도박에 가깝다. 하지만 실제론 '비트코인 등락' 자체가 조작된 정보다. 100%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

위에 가까운 셈이다. 비트코인의 파생상품이란 종목을 실제 존재하진 않다. 그러나 이들이 설명한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1분 뒤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맞추고 이에 따라 수익을 지출하는 방식은 없다.

게다가 실제 비트코인 등락과 연동되지도 않는다. 코인 가격이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를 판단할 구간을 어느 투자회사 일당이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다.

승패의 결과는 관둔을 겨는 순간부터 일당이 맘대로 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은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되지도 않는다. 고스란히 투자회사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어떤 피해자는 "평소 의심이 많은 편이라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인터넷 기사에서 '폴드탄산소가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상품으로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미 돈을 날린 후에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graphic of a ship on waves and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courage and hope for humans). It includes a call to action for subscribers and mentions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Human-centered, Moral-centered, Local-centered).